

새롭게 번져가는 출판사들의 '문화운동'

각종 박물관·합창단 운영에서 학술강좌 등 다양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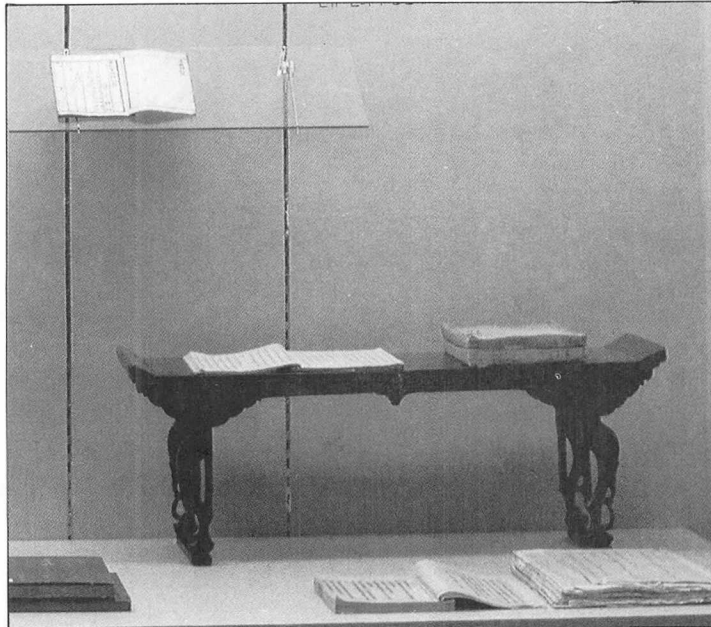
책을 발간하는 일 자체가 문화사업인 출판가에 또다른 차원의 '메세나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최근 유행어가 되다시피 많은 기업체로 번져가고 있는 이 운동에 출판사들도 차례로 참가하고 있는 것. 메세나(mécénat)란 '문화·예술·과학·학술 옹호'를 뜻하는 프랑스어로, 메세나 운동은 '돈있는' 기업들이 '가난한' 문화예술 분야에 재정을 지원하거나 직접 투자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현재 이에 참가하고 있는 출판사들은 금성출판사 동아출판사 삼성출판사 교학사 계몽사 웅진출판사 한샘 삶과꿈 등. 삶과꿈 한샘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기업화해 있는 규모 큰 출판사들이 많이 특징이다. 출판사들이 벌이는 메세나 운동은 실내악단의 조직, 박물관 운영, 문화강좌 마련, 문화행사 후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메세나의 진정한 의미에 한층 더 다가서려 하고 있다.

실내악단·합창단 운영하기도

메세나 운동에 가장 먼저 눈을 뜨는 곳은 계몽사(회장 김준식)다. 온양민속박물관, 계몽문화센터, 서울그림책일러스트레이션 컨테스트, 소천아동문학상, 전국어린이연극경연대회, 계몽앙상블 등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온양민속박물관은 계몽문화재단(계몽사에서 설립했으나 지금은 별도 법인이다)의 가장 비중있는 사업으로, 지난 78년 문을 연 이래 연간 35만여명이 다녀갈 만큼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민속박물관으로 성장한 출판사 메세나 운동의 대표격이다. 국보급의 귀중품보다 호미, 쟁기 등 말 그대로 잊혀져 가



삼성출판박물관 내부.

는 민예품 1만여점이 전시돼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어른들에게 옛 향수를 달래주는 '생활' 박물관이다.

최근 화제를 모은 것이 '계몽 앙상블'. 8명의 중견 음악가로 구성, 지난해 12월15일 창단 첫 공연을 가졌다. 계몽사는 또 문화센터로도 유명하다. 비누방울놀이, 정전기반음, 오토바이타기 등 각종의 '체험놀이' 시설과 연극·영화를 상영하는 '아트홀'로 꾸며져 있어 어린이 및 가족들의 놀이공간으로 사랑받는 곳이다.

음악부문에 지원하는 출판사는 계몽사 외에도 삶과꿈(대표 김용원)이 있다. 이 출판사는 풍족치 못한 재정에도 1년에 운영비로 1억원

여를 들여가며 '삶과꿈 싱어즈'(대표 신갑순)를 운영, 이제는 출판사의 이름보다 더 유명해졌다. 소프라노 이혜정·문은주·김의주씨, 테너 유태왕·고광철·백인수씨, 엘토 김승희·조성희·최미옥씨, 바리톤 박후우·김성범·윤형권씨, 피아노 반주에 강선미씨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 13명으로 조직돼 있다. 벌써 3번의 정기공연과 10여회의 찬조출연을 해왔다. 삶과꿈은 이밖에도 소액이지만 극단 산울림과 바로크, 청운성악회, 《춤》잡지도 지원하는 등 규모에 비해 메세나 운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출판박물관으로 유명한 삼성출판사는 박물관 운영에서 나아가 시민 재교육 차원에서



'계몽앙상블' 멤버들.

'문화학교'를 개최, 10여개의 학술강좌를 이미 실시했거나 마련하고 있다. 김충렬(고려대 철학과) 정양모(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안취준(서울대 회화과) 윤내현(단국대 사학과) 등 해당분야 최고급 강사진으로 구성, '주역' '한국도자사' '한일문화비교론' '한국고대사' 등을 강의해왔다.

출판과 관련된 문화사업에 투자 많아

삼성출판사측은 "출판박물관의 운영과 마찬가지로 영리와는 전혀 무관하다. 기획이나 강사 섭외, 재정적인 지원까지 김종규 회장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전한다. 관람료가 없는 출판박물관은 지난 한해만도 10여만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지혜로운 삶으로의 안내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지혜로운 자가 되고픈 이들에게

동서고금에 걸쳐 위대한 인물들의 지혜로운 언어를 모아, 올바른 삶의 지표를 제시하며 정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책.

◆ 김창원 편 / 400쪽 / 값 5,800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X세대나 감성세대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며 쏟아지는 상업문화의 범람 속에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들.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올바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한번쯤 진지하게 되짚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깨어있는 삶으로의 안내

나는 세상의 중심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깊은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인생을 통찰하고 간결하면서도 쉬운 언어로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한 깨달음의 책!

◆ 석티 거웨인 지음 / 김명렬 옮김 / 400쪽 / 값 5,800원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
팩시밀리 739-2129

제20회 월봉저작상에 김재근 박사

10일 출협 강당서 시상식 가져



지난 10일 출협강당에서 가졌던 월봉저작상 시상식.

올해로 20회를 맞는 월봉저작상에 《속학 국선박사연구》(서울대 출판부·1994)를 펴낸 김재근 서울대 명예교수가 수상했다.

월봉 한기악선생기념사업회(회장 이춘영)는 지난 4월 10일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가진 시상식에서 “김재근 교수는 《한국 선박사연구》간행 이래 10년에 걸쳐 신라 장보고 시대의 배 연구에서 시작해 완도발굴선의 선체구조 탐구, 조선 후기 통신사선 연구, 일제시대 조선업 고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독보적인 연구성과를 이루어 냈다”며 시상이유를 밝혔다.

수상자 김재근 교수는 1920년 평남 용강에서 태어나 경성제대(서울대 전신)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국립해양대 교수, 미 MIT 조선공학과 연구원을 거쳐 서울대 공대 조선공학과 교수로 재직해오다 86년 정년퇴임했다.

월봉저작상은 일제하 언론·교육계에 몸담으며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고한기악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제정된 학술상으로, 지난 1년간의 저작물 가운데 창의성과 학술성이 두루 인정되는 1편에 주어왔다. 11회 때부터 현재까지 이광린(중부대 총장) 민현구(고려

대) 신용하(서울대) 세 교수가 심사위원을 맡고 있으며, 상금은 200만원이다.

'95 전국 도서관인 큰모임 열려

〈'95 전국 도서관인 큰모임〉이 제31회 도서관주간(4.12~4.18)중인 4월 14일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문화체육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우리의 도서관이 공동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생활 속의 열린 문화공간'을 설정, 국민에 대한 정보봉사 영역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한국도서관협회 박계홍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기념식에서는 도서관 발전 유공자 28명에 대한 표창과 주돈식 문화체육부 장관의 격려사, 국립국악원의 기념공연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학술강연회는 한완상 교수의 기초강연 〈세계화·정보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상 정립〉과 김성혁 교수의 특별강연 〈종합 문화정보공간으로서의 전자도서관〉에 이어 〈움직이는 도서관 활성화 방안〉 〈도서관 전산화에 따른 지역센터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의 발표가 있었다.

출판가에 메세나 운동이 활발하다.

계몽사의 온양민속박물관, 삼성출판사의

출판박물관 운영은 메세나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 특이하게도

합창단이나 실내악단을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다. 메세나 운동은

기업의 이익을 사회로 다시

되돌려준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무리 영세하다지만 출판계 역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명이 다니가는 등 어린이·청소년들의 산교육의 장으로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는 곳.

지난 93년 52억5천만원을 출연 '운평문화재단'을 설립했던 금성출판사(회장 김낙준)는 그 기금으로 '독서대상' 신설, 국제출판교류사업 등 출판관련 사업에 두루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MBC창작동화대상, 장학사업에까지 후원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출판으로 번 돈을 출판문화 증진을 위해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자 문화재단을 설립한 만큼 연차적으로 기금을 늘려가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금성측은 밝힌다.

웅진출판사는 자체 운영이 아니라 후원·협찬 형식으로 여러 행사를 돕고 있다. 아동문학협의회(회장 송헌)가 주관하는 '이원수 아동문학의 밤'과 그린스카우트가 주최하는 '환경사랑창작동요제'가 있다. 행사마다 적게는

1, 2백만원에서 때로는 1천만원 이상 지원한다.

“형편대로 사회에 환원한다”

이밖에도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회장 최원석) 회원사로 등록돼 있는 출판사로 동아출판사, 교학사, 한샘 등이 있다. 메세나협의회 회원사가 되면 1구좌(구좌당 1년 2백만원 납입) 이상을 트고 회비를 내게 되는데, 이 돈은 메세나 정신에 부합하는 활동에 쓰여진다. 현재 회원사는 94년 12월 현재 159사로 이중 출판사는 7개사.

웅진출판사 경영기획부 최정순씨는 “근년 들어 문화행사에 협찬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형편상 몇개만 후원하고 있다. 이 일은 대가를 바라는 일이 아니다. 사회에 대한 ‘봉사’일 뿐이다”고 밝힌다. 계몽사 홍보실의 황인희씨도 “출판사들의 문화사업에 대한 투자나 지원은 영리목적의 유사 문화센터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한다.

출판사의 메세나 운동은, '영세함'이 늘 따라다니는 출판업계에 이제는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 만큼 큰 '기업'으로 성장한 곳이 있다는 말도 되고, 설령 대기업만 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방면에 걸쳐 문화의 질을 높이는 범기업적인 메세나 운동에 영세한 출판업계가 해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말해주는 사례라 하겠다.

—정혜옥 기자

사각형의 세계[수학 동화]

F.B. 나카모 지음/김홍래 옮김/112면/4,000원

수학의 기본 원리를 알기 쉽고, 재미 있게 풀이해서 쓴 수학 동화. 수학을 싫어하던 한 어린이가 꿈속에서 수학의 세계를 여행하면서 집합, 숫자의 가치, 4연산, 도형, 입체의 세계를 배우게 된다.

흑인 소년 삼미

G. 스타스 지음/김홍래 옮김/128면/3,000원

어린이도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이야기를 통해 인종 차별, 장애자, 소외된 사람, 가족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어린이들이 “사랑”으로 이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어린이의 사회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

새앙쥐 나라의 올림픽

M. 아놀렛 지음/김홍래 옮김/96면/4,000원

무심히 스쳐버리기 쉬운 자연 현상과 새앙쥐, 매미, 앵무새 등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는 다섯 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애정 어린 주인공들의 표정이 생생하고 곱게 표현된 아름다운 그림은 색감과 관찰력을 길러줄 것이다.

잠자는 사람은 물고기를 낚을 수가 없어요

M. 보따리메리 지음/노재운 옮김/112면/4,000원

여러 가지 격언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게 되었는지를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들려 준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잔잔한 감동을 주는 내용으로 아가자기한 그림도 함께 실려 있다.

철학서적 전문출판사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